

공원서 시장서...접전지역 부동산 잡기 막판 총력전

마지막 주말·휴일 뜨거워 유세전

4·15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12일, 여야 각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합동 유세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합동 유세에는 이개호 민주당 호남권 선대위원장장을 비롯해 송갑석(서구갑), 이형석(북구), 조오섭(북구갑), 윤영덕(동남구갑), 이병훈(동남구), 양향자(서구), 이용빈(광산구갑), 민형배(광산구) 후보 등 광주 지역 후보 모두가 참석했다.

더불어시민당도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김홍철 공동선대위원장, 재운경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참석, 민주당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했다.

현재 북구갑은 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선거구다. 민주당은 조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판단이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의 조직력도 만만치않다는 점에서 이날 북구갑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이

민주-시민당 시장 지도부 총출동 북구갑서 합동유세

민생당·무소속 후보들 지역구 곳곳 누비며 표심 잡기

에 맞서 북구갑 무소속 북구갑 김경진 후보는 말바우 시장, 오지 주공 삼거리, 문흥동 SM 마트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휴일인 이날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표심을 다졌다. 동남갑 장병안 후보는 푸른 길을 걸으며 나들이를 나온 유권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동남을 박주선 후보도 하루 3차례 민생당 3곳을 방문한다는 '3생' 유세를 표방하고 공원, 전통시장, 상가를 차례로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다.

서구갑 김명진 후보는 유세차량에 홀로 타고 동천동, 농성동, 화정동, 관천동, 양동시장 일대를 돌며 한표를 호소했다. '3천배' 유세에 들어간 서구를 천정배 후보는 풍곡사거리, 염주사거리 등에서 도로변에 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유권자에게 절을 했다.

북구를 최경환 후보는 광주비엔날레 정문에서 선거운동원, 지지자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펼쳤으며, 광산갑 김동철 후보는 광주여대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빛고를 체육관에서 어등산 입구까지 걸으며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광산을 노승일 후보는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LC타워 사거리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전남지역 10개 선거구에서도 마지막 주말 유세전이 뜨겁게 진행됐다. 민주당 김원이, 민생당 박지원,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목포에서는 휴일 표심 잡기가 치열하게 펼쳐졌다. 김원이 후보는 새벽시장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봄꽃이 활짝 핀 달맞이 공원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오후 평화광장에서 선거운동원, 지지자와 함께 집중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소하 후보는 유세 차량을 타고 목포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장미



4·15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선거운동원들이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거리에서는 집중 유세를 펼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노동 이사제' 도입 광주 민주당 후보 8명 중 5명 찬성

6명, 현대차 태도 변화 요구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요구했던 '노동 이사제'에 대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 8명 중 5명은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후보들은 또 현대차를 향해 전환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노사간 소통과 대화, 협력 등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광주 8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최대 쟁점을 묻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갑석 후보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노동계와 사업주측이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노동 이사제'에 대해선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 등 5명이 도입 찬성을, 이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향자 후보는 "반반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후보들은 '노동이사제'라는 용어에 노동계 경영 참여 방법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형석 후보는 "노동이사제란 용어에 대해 노사민정 각 주체마다 입장차가 있다. (용어를

벗어나)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후보는 "노동이사제 찬반 논의만 그쳐서는 안되고, GGM 운영에 노동계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노동계 추천 공동대표제 검토를 제안했다. 민형배 후보는 "광주형 일자의 모델인 독일 아우토5000사례와 함께 노사간 소통과 대화, 협력 등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반대하면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한 이병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현대차가 받을 것이고, 자동차 유관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고, 양향자 후보는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할 입장에서 노동계 요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노동계와 현대차, 주주의 참여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찬반 여부에 대한 답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을 위한 현대차와 GGM에 바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양향자 후보를 제외한 후보 6명이 공동으로 "현대차의 전환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노사간 소통과 대화, 협력 등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바람" VS "현역 조직력"...여야 사상 최고 사전투표율 아전인수 해석

민주당 "문 정부 힘 실어주기"

민생당 "조직력이 이끌어"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 각 당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로 대표되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표심의 결집'으로 해석했고, 야당은 '정부 심판 열기'로 분석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전남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바람'이라는 분석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라는 엇갈린 여야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대 최고인 이번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국난 극복,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3년간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 투표자'가 대거 몰린 것이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린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중로 대학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애국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총선으로 생각하고 많이 모여 힘을 보탠 것으로 안다"며 "그걸 보면서 반대 세력도 모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생당 설영호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 투표에서도 일정 부분 득표를 상승이 예상된다. 국민들의 가장 높은 정책 공감을 보여준 민생당에 높은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투표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환란이 컸음에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 원칙을 지키는가 평가하고 마음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주이

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조국 사태로 불공정과 위선을 드러낸 여당, 혁신은 없고 반문(반문재인)으로 무조건 통합밖에 모르는 무능한 야당 둘 다를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라고 말했다.

전국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보인 광주·전남지역도 분석이 엇갈렸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다"며 승리를 자신했고, 민생당 광주시당은 "수 년간 쌓인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 높은 이 지역 사전투표율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당일 구름 끼고 포근...투표율 오를까 떨어질까 가장 쌀쌀한 15대때 투표율 최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날씨가 총선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일인 15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수준을 보이다가 낮이 되면 17~22도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 당일 이 같은 날씨와 투표율, 정당 득실과 관련해서는 속설이 분분하다.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이 상승하고 날이 낫으면 유권자들이 외출을 꺼려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선거 당일 쾌정한 날씨를 보이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반대 속설도 있다. 여가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이

나들이하러 가는 탓에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미국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진다. 맑은 날씨를 보이면 보수당인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에서 '리퍼블리컨 블루'(Republican Blue)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선 당일 날씨와 투표율 간 뚜렷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방재 기상 정보시스템으로 총선이 4월에 실시되기 시작한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도시 날씨와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가장 쌀쌀한 15대 총선 투표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